

문화적, 민족적 전개

-아세르 인트레이터, 코디 아처 Cody Archer

예슈아를 믿는 첫 신앙 공동체는 사부울(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함께한 핵심적인 120 명의 유대인 신자(행 1:15)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의 “이스라엘” 토박이들이었습니다 (행 1:11; 2:7).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 예슈아의 갈릴리 제자들과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더 종교적인 유대인 사이의 거의 민족간이라 할만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마 26:73, 막 14:70, 눅 22:59; 23:6, 요 7:1; 7:52). “갈릴리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사이의 갈등을 보면 오늘날의 메시아닉 유대인과 정통 유대교인 사이의 갈등과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핵심 그룹은 즉시 3,000 명이라는 더 큰 그룹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행 2:41).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이들입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행 2:5.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 – 행 2:10-11. (그레데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유럽에 속한 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그룹 안에는,

1. "토박이 이스라엘" (갈릴리) 유대인들
2.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3. 유대교 개종자들
4. 유럽 사람들 (그레데인)
5. 아라비아인들

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교회”가 성장하여 후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접붙여진 (롬 11:17)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은 이미 첫날부터 분명했으며 에클레시아의 기초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언어, 문화, 민족적 배경의 조합은 이 공동체 내에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행 6:1).

각국에서 온 예루살렘 방문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그들의 나라로 전해졌습니다. 각 나라별 그룹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추구하여 심지어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 행 11:26.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 제자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어떤

모임이 아닌, 그들 주위 유대인 공동체의 온전한 한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명칭”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교회의 수가 늘면서 두 가지 정체성이 발전되었습니다. 열방 중에서 그들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 – 롬 16:4 라고 불렀고, 유대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 내가 나를 위하여 ...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롬 11:4-5. 사도들의 국제적 공의회(행 15 장)는 이 두 그룹이 각자 공동체 별로 하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복음은 유럽으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교”인들의 공동체에도 침투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교인들이 믿게 되었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 한 갈릴리 제자들과는 다소 다른 식으로,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토라와 랍비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 행 21:20-21.

이와 같은 여러 민족적 다양성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원래의 위임을 자연스럽게 성장시켰습니다 (행 1:8). 오늘날 복음이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면서 1 세기 때의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 즉 이스라엘 내의 메시아닉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및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상황(계 7:4, 9)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베아드 하임 이스라엘

저희는 가난한 이들과 다른 사역체들, 이렇게 양쪽으로 재정 후원을 함으로써 이곳 이스라엘의 메시아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미혼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돕는 데에 있어 탁월한 일을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베아드 하임(생명을 위하여)에 대한 특집을 내보냅니다. 베아드 하임 이사인 샌디 쇼샤니 Sandy Shoshani 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